

SJAS 로 측정 한 A 형 행동양상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 석 권

=Abstrac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ype A Behavior Pattern Measured by the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

Suk Kwon Suh,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To investigate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 enhance and maintai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TABP) sociall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A-B Behavior Pattern measured by the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 (SJAS, short form), the author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a medical school undergraduates (413) as a study population April to May, 1988. The cut-off point which divides into A-B Behavior Pattern was ± 1 standard deviation of the total score of the SJAS (≤ 3 , ≥ 10), resulting in 61 TABP & 82 Type B Behavior Pattern (TBBP).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the total score of the SJAS measured by Cronbach's alpha was 0.72. In the family environments,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place raised, deceased father, age of father between TABP and TBBP. The Hollingshead's socioeconomic status index which was dichotomized by median valu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high index group was 47.4% in TABP and 65.8% in TBBP ($P=0.03$). TABP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ge, sex, and proportion of those who have a religion compared with the TBBP. The proportion of those who suffered a failure more than once academically after entering the medical school was 19.7% in TABP and 35.4% in TBB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4$). TABP was not different from TBBP in the habits of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s. The smaller proportion of the failure suffered in TABP than TBBP could explain the competitive and hard-driving aspects of the TABP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may exert a different influence on the socialization pressur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the TABP in the early life from the American's.

서 론

A 형 행동양상 (Type A Behavior Pattern, TABP) 이란 Rosenman 과 Friedman (1966) 이 1960년에 특정한 행동양상과 관상동맥질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행한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WCGS)란 연구계획에서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서 분류한 행동양상의 하나이다. 증가된 공격심, 야심적인 특성, 경쟁적인 추진력, 지속적인 시간에 대한 긴박감, 쉽게 야기되는 적대심 등을 행동특성으로 하는 집단을 기술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용어로서 좁

*이 논문은 1988년도 계명대학교 을중연구비 및 동산의료원 조사연구비로 이루어졌음.

더 적은 시간에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감정 복잡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상대적인 행동양상을 B형행동양상이라고 한다.

A형행동양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질병은 많으며, 특히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의 위험인자로서 흡연, 비만, 고혈압과 같은 전통적인 위험인자와 함께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The Review Panel, 1981; Siegel, 1984).

A형행동양상의 사회인구학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A형행동양상이 주로 사회적으로 획득되는 특성이라는 보고들(Cohen 등, 1975; Rahe 등, 1978; Matthew & Avis 1983; Bergman & Magnusson, 1986; Carmelli 등 1988) 때문으로서 인구집단에서 A형행동양상의 분포를 보아서 A형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켜 주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알아내어 A형행동양상 생성과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있으며 그리고 인구집단내에서 고위험군(high risk group)을 알아내어 예방의학적인 견지에서 개입이 가능한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을 찾는 데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A형행동양상과 사회인구학적인 관련성의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 (SJAS)로 측정된 A형행동양상 총 점수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월간 소비하는 용돈과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정의 예측변수로 선정되었고(Bryant & Yarnold, in press), Moss 등 (1986)은 18세 이상의 Michigan 주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Jenkins Activity Survey(JAS)를 시행한 결과 가계의 수입과 결혼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외에 Shekelle 등 (1976)은 백인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성인용 JAS(Form B)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의 관계를 보았고 작업수행 욕구와 학교에서의 성적과의 관계(Matthew & Volkin, 1981; Grimm & Yarnold, 1984), 그리고 흡연과 음주와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들도 있다(Camargo 등, 1986; Yoshida 등, 1987; Glynn 등, 198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A형행동양상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 나중덕(1987)이 창업인과 비창업인과의 심리적 특성 비교에서 Framingham Type A Behavior Scale (FTA)을 이용한 바 있고, 팽광호 등 (1987)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관련요인 연구에서 이용했으

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치 않고 사용했으며, 특히 15개 정도의 A형행동양상을 측정해 주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있음(Yarnold & Mueser, in press)에도 불구하고 팽광호 등의 연구에서는 이 중 어느 척도를 사용했는지도 기술치 않았다. 이충원과 이성관(1988)은 혈압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선정에 FTA를 대학생 집단에 실시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본 바 있으나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A형행동양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SJAS로 측정된 A형행동양상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의 관계를 보아 A형행동양상을 조장시키고 유지시켜 주는 대상자들의 가정환경과 그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자 및 방법

대구시 소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와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지는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SJAS)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JAS는 윌케 Glass (1977)가 성인용인 Jenkins Activity Survey에서 직업과 관련된 문항을 없애고 대학생 집단에 적절하게 조정한 척도로서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arnold 등 (1987)이 문항수를 대규모 조사에 맞게 21문항으로 조정해서 실시시간은 Glass의 SJAS보다 더 적게 걸리면서 A형행동양상 개념에는 더 잘 맞는 축약형의 SJAS로 개발한 바 있는데 이것을 A형행동양상 척도로 사용했다. A형척도의 번안과정은 SJAS의 고안자인 P.R. Yarnold 박사로 부터 직접 설문지를 받아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약간 조정(문항 17; “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같은 방학기간 중에—”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방학과 같은 휴가기간에”로 번안)해서 미국인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의 자문의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배부해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준 후에 회수했으며 조사기간은 1988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였다. 응답율은 총 대상인원 569명 중에 427명이 응해서 75.0%를 나타냈으며, 설문지에서 탈락된 자료가 많거나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14매의 설문지를 제외시켜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413명이었다.

A형과 B형의 구분은 SJAS의 총점수의 극단적인 값을 사용케 되면 유일하게 전향성 조사에서 타

당도가 인정된 Structured Interview(SI) 방법과 일치율이 좋아지므로 Bryant와 Yarnold(in press)가 제시한대로 ± 1 표준편차($M \pm SD$, 6.25 ± 2.90)인 ≤ 3 , ≥ 10 을 A, B형을 구분짓는 점수로 했는데 A형 행동양상이 61명, B형 행동양상은 82명이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SJAS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보았고 각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의 관계는 X^2 -test를 이용해서 유의성을 검정했다.

결 과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자가 79.4% 그리고 연령별로는 24세군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의 기간동안 거주했던 성장지로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포함한 대도시가 7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촌을 주 거주지로 한 사람들이 10.4%였다. 종교는 무교가 49.2%로 반 정도를 차지했고 개신교, 가톨릭의 순서였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Number(N=413)	Percent
Sex		
Male	328	79.4
Female	85	20.6
Age		
-24	364	88.1
25+	49	11.9
Place raised		
Large city	325	78.7
Medium-sized city	40	9.7
County	43	10.4
Others	5	1.2
Religion		
Protestant	129	31.2
Catholic	49	11.9
Buddhist	26	6.3
None	203	49.2
Others	6	1.5

Cronbach's alpha로 본 SJAS의 신뢰도는 전체 분항에 대해서 0.72 그리고 각 하위척도 역시 높은 신뢰도계수를 나타냈으나 A형 행동양상중 빨리 말하고자 하는 성향을 측정해 주는 하위척도(fast alking)는 0.48의 낮은 계수치를 보였다(표 2).

SJAS 총점율 ± 1 SD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값으

Table 2. Measures of reliability of the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 by Cronbach's alpha

Scale	Reliability coefficient (items)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SJAS)	0.72(21)
Hard-driving	0.70(11)
Fast eating	0.81(2)
Fast talking	0.48(2)

로 구분한 A-B형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주장지, 부친의 생존여부, 부친의 연령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A형에서 부친이 사망한 사람이 더 많고 부친의 연령이 더 젊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Hollingshead의 사회경제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구성하는 교육과 직업년수를 보면 A형의 부친중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31명으로서 50.8%를 나타냈으나 B형은 54명으로서 65.8%를 보이고 있어 B형의 부친의 교육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Hollingshead의 직업기준에서 1, 2, 3을 전문직과 고급사무직(white color)으로 4, 5, 6, 7을 저급사무직과 노동직으로(blue color) 구분한 결과를 보면 A형의 부친중 전문직의 비율은 59.6% 그리고 B형에서의 비율은 69.6%로 B형에서 높았으나 이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과 직업점수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Hollingshead의 사회경제지위지수(socioeconomic index)를 중앙값으로 이분화 해서 상하로 나누어 보면 A형에서의 상의 비율은 47.4%, B형에서는 65.8%로서 B형의 부친의 사회경제지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었다($P=0.03$)(표 3).

성격특성에 따른 성별과 연령의 분포를 보면 A형에서 남자가 80.3%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B형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4세 이하의 연령군 역시 많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4).

대상자의 사회학적인 변수 그리고 개인습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A형에서 B형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았으며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유급(휴학포함)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A형에서는 19.7%, B형에서는 35.4%로서 B형에서 많았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성도 있었다($P=0.04$). 현재의 흡연습관에 대한 물음에서는 비흡연자의 비율은 거의 같았으나 하루에 2개피 이상을 규칙적으로 피우는 정규흡연자의 비율은 B형에서 높았으며

Table 3. Social environment by Type A & B behavior pattern

Study factor	Type A (N=61) ^a	Type B (N=82)	X value	P value
Place raised				
Large city	50(82.0)	65(79.3)	0.16	0.69
Others	11(18.0)	17(20.7)		
Deceased father				
No	53(86.9)	77(93.9)	2.08	0.15
Yes	8(13.1)	5(6.1)		
Father's age ^b				
40-49	13(24.5)	12(15.6)	4.41	0.11
50-59	36(67.9)	50(64.9)		
60+	4(7.6)	15(19.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31(50.8)	54(65.8)	3.29	0.19
High school	19(31.2)	18(22.0)		
<High school	11(18.0)	10(12.2)		
Father's occupation*				
White color	34(59.6)	55(69.6)	1.46	0.23
Blue color	23(40.4)	24(30.4)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High	27(47.4)	52(65.8)	4.63	0.03
Low	30(52.6)	27(34.2)		

^a Type A-B pattern : ± 1 standard deviation was cut-point.

^b Numbers do not always add to 143 due to missing values.

* Hollingshead's education and occupation scores: education; > high school (1, 2, 3), high school(4), < high school (5, 6, 7), occupation; white color (1, 2, 3), blue color (4, 5, 6, 7).

** Hollingshead's socioeconomic scores; dichotomized by the median score.

Table 4. Sex and age distribution by Type A & B behavior pattern

Study factor	Type A (N=61)	Type B (N=82)	X value	P value
Sex				
Male	49(80.3)	62(75.6)	0.45	0.50
Female	12(19.7)	20(24.4)		
Age				
-24	55(90.2)	69(84.1)	1.10	0.29
25+	6(9.8)	13(15.9)		

경계선의 유의성을 보였다(P=0.08).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개피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달에 음주하는 횟수는 비음주자가 A 형이 20.0%, B 형이 32.5%로서 B 형에서 비음주자가 더 많고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A 형이 31.7%, B 형이

Table 5. Distribution of social factors by Type A & B behavior pattern

Study factor	Type A (N=61)	Type B (N=82)	X value	P value
Religion				
Have	30(49.2)	49(59.8)	1.58	0.21
Have not	31(50.8)	33(40.2)		
Failure				
Yes	12(19.7)	29(35.4)	4.21	0.04
No	49(80.3)	53(64.6)		
Status of smoking				
None	30(49.2)	38(50.0)	5.0	0.08
Occasional	10(16.4)	4(5.3)		
Regular	21(34.4)	34(44.7)		
Cigarettes consumed per day				
None	30(56.6)	38(52.8)	0.32	0.85
-10	9(17.0)	15(20.8)		
11+	14(26.4)	19(26.4)		
Frequency of drinking per month				
None	12(20.0)	26(32.5)	3.15	0.21
1-3	29(48.3)	36(45.0)		
4+	19(31.7)	18(22.5)		

22.5%로서 A 형에서 음주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5).

고 찰

A 형 행동양상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지의 물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A 형의 성장배경을 조사하므로써 A 형 행동양상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켜 주는 변수를 알아내어 A 형의 생성과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 위험군을 찾아내어 조기에 개입이 가능한 목표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Yarnold 등 (1986)이 SJAS 로 1,81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ronbach's alpha 로 본 내적일관도는 총문항에 대해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라 0.4-0.62 정도의 계수를 보였고, hard-driving 의 하위척도는 0.57-0.70의 범위를 보였고 시간에 따른 안정도를 보기 위해 실시한 2주와 3개월간의 검사-재검사법은 총집수에 대해 0.70-0.96에 이르는 상관계수치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문항은 0.72, hard-driving 은 0.70으로 좋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Fast eating 과 Fast talking 의 하위척도는 각각 0.81, 0.48의 계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들 하위척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적일관성을 점검해 본게 없어

서 비교는 불가능하나 Fast talking 만이 낮은 신뢰도계수를 보여 문제가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설문문의 문항들이 하나의 중심이 되는 개념 혹은 차원을 측정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Yarnold 등 (1986)의 보고 보다 신뢰도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 내적일관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으나 대상집단이 더 동질(homogeneous)하고 그 수가 더 적었다는 이유를 배제할 수 없다.

주성장지 변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Byrne 등 (1985)은 호주의 40-49세의 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SI로 측정한 A형 행동양상(A₁, A₂)이 도시에서 49.6%, 농촌에서 30.3%로 도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JAS로는 요인 J 즉 직업적인 관련(job involvement)의 하위척도만이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그외의 5개의 A형을 측정해주는 자기보고식 척도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I로 본 결과가 농촌지역의 느린 생활양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A형의 사람들이 도시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혹은 B형이 농촌의 느슨한 생활을 찾아 선택적인 이주(selective migration)를 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A형의 부친이 사망한 사람이 더 많고 연령이 젊은 경향을 보였는데 부친이 사망한 경우 사망시기, 원인, 사회적인계층, 어머니의 역할, 형제간의 관계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통 남아가 그 영향이 여아보다 더 크며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아버지의 부재시기가 4,5세 이전이면 남아로서의 역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여성적인 경향을 띠며, 사회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부족적이고 봉사적인 면을 지나나 때때로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려고 과격한 행동을 취할 때도 있는 반면에 여아들은 어릴때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사춘기와 성인기에 갈수록 그 영향이 커져서 특히 부재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경우 매우 위축된 성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정령숙, 1984).

Hollingshead의 교육과 직업기준으로 본 교육수준과 직업의 지위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만든 Hollingshead의 SES 지수 모두다 B형의 부친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atthews와 Avis(1983)의 5-13세의 633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 행동양상(Matthews Youth Test for Health로 측정)이 나타나서 시간에 따라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연령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1년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47-0.59(평균 0.55)

의 범위를 보였고 그 정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졌으며 연령에 따라 좀더 안정화 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어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벌써 A형 행동양상이 안정화됨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상류계급과 중상류에 속하는 가정의 환경을 가진 소년이 중하류의 농촌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에 비해서 경쟁적 성취행위(competitive-achievement behaviors)에서 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이는 중상류이상의 가정환경이 학문적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화 압력(socialization pressure)을 더 많이 받음을 시사해 주는 소견이라 할 수 있어 본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중상류계층의 사회화 방법은 인성적인 통제와 판단적인 통제를 그리고 참여적, 사고중계적 사회화 유형을 보이는 반면에 하류계층에서는 지위적이고 표준적인 통제를 그리고 억압적, 감각우의적인 사회화유형을 보이고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산층의 부모가 하류계층의 부모에 비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온화한 태도를 지니며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도 이유를 설명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나타내는 훈육을 하는 반면에 하류계층의 부모들은 보다 강경하고 신체적인 벌등을 가하는 훈육태도를 지니고 있다(Broom & Selznick, 1967). 그리고 진규철(1987)의 부모의 사회통제방식중 강제적, 지위적 사회통제방식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냈다는 보고 등을 볼 때에 오히려 낮은 계층의 부모들이 A형 행동양상의 측면중 하나인 경쟁적이고 정력적인 특성을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의 분포에 따른 차이는 없었는데 Moss 등 (1986)은 18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A형의 분포가 성별과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과는 종모양(inverted U)의 분포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종교유무는 별 차이가 없었고 유급한 경험이 A형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은 것은 A형의 특성중 경쟁적이고 정력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의학공부는 타 학과와는 달리 꾸준한 노력과 끈기를 요구하는 학문이므로 A형 행동양상의 특성과 잘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Matthew와 Volkin(1981)은 A형의 어린이가 애매한 작업기준이 부여된 과제에 있어서 B형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으나 Grimm과 Yarnold(1984)는 시험전에는 A형이 받고자 하는 예상 점수는 B형보다 높게 설정하나 실제 받은 점수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흡연습관과의 관계는 정규흡연자(regular smoker)의 비율이 B형에서 높았고 하루에 피우는 개피수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Shekelle 등 (1976)은 JAS로 측정된 A형과 남자와 젊은 여자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개피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극히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음주습관은 A형에서 비음주자도 적고 한달에 4회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Camargo 등 (1986)의 81명의 건강하고 사무적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SI로 구분한 보고에 의하면 A형행동양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B형보다 약 2배의 술소비를 더한다고 했고 729명의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한 Yoshida 등 (1987)의 보고에 의하면 A형행동양상의 척도를 주성분 분석해서 얻은 전체적인 성급함(overall irritability)의 요인이 연령을 통제 한 후에도 음주와 흡연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Glynn 등 (1988)은 A형과 음주량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는 A형행동양상이 부친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의한 사회화의 압력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해 주고 있고 A형은 B형보다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더 좋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단점으로는 대상자가 연구자의 편에 의해 표본추출 되어서 결과해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과 SJAS 척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척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SJAS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면 SI와의 일치도가 떨어지고 SI처럼 전향성조사에서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있는 것으로 확인된 척도가 아니며, 현재의 연구 추세로 보아 관상동맥질환과 특정한(specific)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A형행동양상의 한 측면인 쉽게 야기되는 적대감(easily aroused hostility)의 측정에 약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Dembroski 등, 1985; Hecker 등, 1988; Ragland & Brand, 1988). 그러나 Yarnold와 Bryant(in press)는 A형행동양상측정에 SI만을 사용하게 되면 Mono-operational bias가 야기될 수 있고 실시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반복해서 행동양상을 측정하는 전향성조사에서는 부적절하며 측정이 4개의 범주로 측정되므로 통계적인 결론의 타당도가 떨어지며 수렴적(convergent), 판별적(discriminant), 전향적인(prospective) 타당도를 제한시키는 단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으로는 JAS척도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집단을 좀더 잘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추출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고 A형행동양상이 실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지의 물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Twin study와 형성되는 시기를 좀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기 위해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A형행동양상이 나타나서 시간에 따라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연령범위를 알아보는 연구 그리고 횡문화적인(cross-cultural) 연구를 해서 외국과는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의 특이성(etic)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Yarnold 등 personal communication).

요 약

Student Jenkins Activity Survey(SJAS)로 측정된 A형행동양상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보아 A형행동양상을 조장시키고 유지시켜 주는 가정환경과 그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1개의과대학 학생들(413명)을 대상으로 1988년 4월 하순부터 5월초순까지 SJAS를 포함한 설문지조사를 실시했다. A형과 B형의 구분은 ± 1 표준편차($M \pm SD$, 6.25 ± 2.90)인 ≤ 3 , ≥ 10 로 했으며 A형행동양상이 61명, B형행동양상이 82명이었다. Cronbach's alpha로 본 SJAS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해 0.72였다. A-B형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서 주성장지, 부친의 생존여부, 부친의 연령과 유의성이 없었으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 하로 나눈 Hollingshead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상이 A형의 부친중에 47.4%, B형에서는 65.8%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3$).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서 차이가 없었고 종교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A형에서 19.7%, B형에서 35.4%로서 B형에서 많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 역시 있었다($P=0.04$). 흡연습관과 음주습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SJAS의 신뢰도는 중이상이고 유급정도의 차이는 A형의 경쟁적이고 정력적인 측면을 시사해 주는 소견임을 알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의 관계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름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나중덕 : 창업인과 비창업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대구 한의과대학논문집 1978; 5 : 109-123.
2. 방광호 · 조애서 · 공새원 : 한국남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관련요인 연구 : 고혈압성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인구보건논집 1978; 7 : 3-21.
3. 이충원 · 이성관 :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혈압과의 관계. 예방의학회지 1988; 21 : 99-112.
4. 정령숙 : 아버지 부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적 고찰(I).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28집 1984.
5. 진규철 : 교사와 부모의 사회통제 방식과 아동의 학업성취 및 인성특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6. Bergman LR, Magnusson D: Type A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sychosom Med* 1986; 48 : 134-142.
7. Broom L, Selznick P: *Principles of sociology*, NY, Harper and Row, 1967.
8. Bryant FB, Yarnold PR: A measurement model for the Short Jenkins Activity Survey. *J Personality Assessment*, in press.
9. Byren DG, Rosenman RH, Schiller E, et al: Consistency and variation among instruments purporting to measure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som Med* 1985; 47 : 242-261.
10. Camargo CA, Vranizan KM, Thoresen CE, et al: Type A Behavior Pattern and alcohol intake in middle-aged men. *Psychosom Med* 1986; 48 : 575-581.
11. Carmelli D, Rosenman R, Chesney M, et al: Genetic heritability and 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s of Type A measures in the NHLBI Twin Study. *Am J Epidemiol* 1988; 127 : 1041-1052.
12. Cohen JB, Syme SL, Jenkins CD, et al: The cultural context of Type A Behavior and the risk of CHD. *Am J Epidemiol* 1975; 102 : 434.
13. Dembroski TM, MacDougall JM, Williams RB, et al: Components of Type A, hostility and anger-in; relationship to angiographic findings. *Psychosom Med* 1985; 47 : 219-233.
14. Glass DC: *Behavior Patterns, Stress and Coronary Disea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1977.
15. Glynn RJ, De Labry LO, Hou DM: Alcohol consumption, Type A Behavior, and 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Am J Epidemiol* 1988; 127 : 310-320.
16. Grimm LG, Yarnold PR: Performance standards and the Type A Behavior Pattern. *Cognitive Therapy Res* 1984; 8 : 59-66.
17. Hecker MH, Chesney MA, Black GW, et al: Coronary-prone behaviors in the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Psychosom Med* 1988; 50 : 153-164.
18. Matthews KA, Avis NE: Stability of overt Type A Behaviors in children: Results from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1983; 54 : 1507-1512.
19. Matthews KA, Volkin JI: Efforts to excel and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Child Devel* 1981; 52 : 1283-1289.
20. Moss GE, Dielman TE, Campanelli PC, et al: Demographic correlates of SI assessments of Type A Behavior. *Psychosom Med* 1986; 48 : 564-574.
21. Ragland DR, Brand RJ: Coronary heart disease mortality in the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Am J Epidemiol* 1988; 127 : 462-475.
22. Rahe RH, Hervig L, Rosenman RH: Heritability of Type A Behavior. *Psychosom Med* 1978; 40 : 478-486.
23. Resenman RH, Friedman M, Straus R, et al: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a follow-up experience of two years. *JAMA* 1966; 195 : 130-136.
24. Siegel JM: Type A behavior: Epidemiologic foundations and public health implications. *Ann Rev Pub Health* 1984; 5 : 343-367.

25. Shekelle RB, Schoenberger JA, Stamler J: Correlates of the JAS Type A Behavior Pattern score. *J Chron Dis* 1976; 29 : 381—394.
26. The Review Panel on Coronary-prone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Coronary-prone behavior and coronay heart disease: a critical review. *Circulation* 1981; 63 : 1199—1215.
27. Yarnold PR, Bryant FB: A note on measurement issues in Type A Research: Let's no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J Personality Assessment*, in press.
28. Yarnold PR, Bryant FB, Grimm LG: Comparing the long and short forms of the student version of the Jenkins Activity Survey. *J Behav Med* 1987; 10 : 75—90.
29. Yarnold PR, Bryant FB, Litsas F: Type A Behavior and Psychological Androgyny among Greek college students. Personal Communication.
30. Yarnold PR, Mueser KT: Meta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the Type A Behavior measures. *Br J Med Psychol*, in press.
31. Yarnold PR, Mueser KT, Grau BW, et al: The reliability of the student version of the Jenkins Activity Survey. *J Behav Med* 1986; 9 : 401—414.
32. Yoshida K, Kurita M, Ooya S: Type A Behavior Pattern in health education. *Jpn J Ind Health* 1987; 29 : 99—109.